

포장 진공분야 고객만족 추구 한국포장기계대상 기술개발부문 수상



조 호 영
한국뉴매틱(주) 대표이사

“한국뉴매틱(주)이 설립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받는 상이라 더욱 기쁘고 의미가 깊습니다. 오로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한국뉴매틱(주)을 이끌어 왔는데 뜻하지 않은 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희 전직원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한국포장기계대상 기술개발부문에 선정된 조호영 한국뉴매틱(주) 대표이사는 시종일관 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기쁨을 전했다.

조호영 사장은 1991년 한국뉴매틱시스템을 설립, 공장 자동화 부품인 에어식 진공펌프, 진공 컨베이어, 에어밸브, 에어 실린더 등을 취급하며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확대에 정진하고 있다.

한국뉴매틱(주)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부품인 단노즐 AIR EJECTOR와 모터 진공펌프에 의존하던 국내기술의 한계성과 과다하게 드는 유지비수 비용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며 모든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200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에어식 진공펌프를 이용한 분체 및 원료이송 기계 개발에 성공하였고 지난해 대용량 에어식 진공펌프를 개발하는 등 국내 특허는 물론 세계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

특히 독일, 미국, 말레이시아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에 대리점을 운영하며 수출을 위한 영업력 확보의 교두보를 다져가고

있다.

“한국뉴매틱(주)이 주로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 국내 보단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는 조호영 사장은 “세계에 회사를 알리기 위해 자사브랜드로 VACUUM TECHNOLOGY 및 VITORY를 상징하는 로고 V-TEC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창업초기부터 지금까지 진공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매진해 온 한국뉴매틱(주)은 기존 단노즐 방식의 진공 펌프나 전기 모터 구동 방식의 진공펌프로는 불가능한 고효율의 진공 흡입량과 높은 진공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에어식 다단노즐 진공펌프 개발에 성공, 이번 한국포장기계대상 기술개발부문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조 사장은 “에어식 다단노즐 진공펌프는 전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며 단지 콤프레셔 에어에 의해 작동되며 내부구조가 다단 노즐방식에 의한 원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단 노즐 방식에 비해 월등한 고효율의 진공도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식 다단노즐 진공펌프는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의 최적화, 자동화 설비 및 핵심 부품의 국산화,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게 됨은 물론 모든 산업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객차원에서 품질만을 생각하며 기계를 개발했다는 조 사장은 “품질 보증기간은 5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조직망 구축작업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가격경쟁력을 키워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을 확대하여 V-TEC 브랜드를 일류 브랜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꾸준한 해외 활동과 유럽을 기준으로 기계를 개발한 덕에 이미 외국에서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정받은 V-TEC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것은 사실이다.

조 사장은 “Japan Pack에 참가할 당시 한국 엔지니어링 관계자가 부스에 방문하여 ‘국내에서 쓰고 있던 V-TEC 제품이 이제껏 독일 제품 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우리 나라 제품인 것을 알고 매우 뿌듯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며 간단한 일화를 소개했다. 덧붙여 “간혹 몇몇 업체들이 국내 제품이 외국브랜드와 품질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브랜드를 고집할 때 매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포장인들이 되기 위해 업체간의 동반자 역할은 물론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돼 포장기계산업이 좀더 발전되길 바란다는 조 사장.

앞으로 조호영 사장은 고객만족을 추구하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넓고 큰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호영 사장의 또다른 도전을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